



지하수 '적색등' ... 먹는 물도 모자랄 판

인구증가 대비 2025년 1일 용수 수요량 66만8000t 상수도 지하수에 의존... 기후변화로 취수량 줄듯 도, 신규 취수원 억제속 유수율 제고·물 절약 총력

오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1일 용수 수요량이 66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능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하수 개발이 한정적이어서 상수도 공급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의 상수도 공급여건은 지하수인 경우 1일 취수량이 46만 3000t보다 4만7000t을 초과 취수해 약 1일 51만t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오염과 해수침투 등 기존 취수시설에서의 취수중단 상황을 대비해 현재 1일 취수량의 10% 수준인 5만t을 비상용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 시설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은 비상용을 제외하면 1일 약 53만5000t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증가를 대비한 장래 수급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인구 100만명(제주미래비전 기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용수 수요량은 하루 66만8000t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지하수에 의존하면서 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외도와 강정 등의 용천수원은 기후변화로 취수량

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취수원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의 91% 정도가 이미 허가돼 있고, 일부 지역은 초과해 허가됨에 따라 신규 취수원(지하수) 개발이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으로 신규 취수원 개발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계획된 취수원 및 제2공항 지역 취수원 개발은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 수급상황을 보면서 원안자부담 사업으로 제한적 개발을 한다는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한림정수장과 금산수원지 등 운수시설을 개량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추가 상수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제주도는 상수도 유수율 문제 해

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구축한 상수관로 35km 구간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전자유도방식의 탐사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여러 시설물이 복잡하게 매설된 구간은 최신 레이더탐사(GPR)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이용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맞춰 사회전반에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절수기기 보급 확대 및 생활 속 물절약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돌입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시행자측으로부터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동물테마파크 주민상생·환경영향평가 '도마'

도의회 행조특위 현장 방문 지역주민들 찬반 갈등 여전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행조특위) 현장방문에서 주민상생방안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제

침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돌입한 도의회 행조특위는 첫 방문지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찾았다. 이날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보고에서 조

천을 탐사습습지도시와의 상생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오는 8월까지 마을주민 상생 방안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준배 의원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대화를 통한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최근 반대위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새 국면에서 주민상생방안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의 영향평가 재심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강성의 의원은 "앞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와 지금은 환경이나 정책이 차이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영향평가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도 "계획을 보면 말 위주에서 맹수로 변하는 등 사업내용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조건을 전체가 탐사습습지도시로 지정되는 등 생태학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거들었다. 앞서 말 산업 위주의 테마파크에서 야생동물 사파리 테마파크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필수로 피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동안 동물테마파크 찬성측은 천막을 치고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반대측은 사업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편 행조특위는 이날 팜파스종합 휴양관광단지 등 총 3곳을 더 방문해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둘러봤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논의 청와대 "초당적 협력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협의를 통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번 회동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비롯된 현재 상황에 대해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가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국회·부미현기자

도개발공사, 취약계층 사회공헌사업 본격화

어제 공동모금회에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전 방위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서 54개 단체·기관에서 57건의 제안이 접수된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사업' 공모를 통해 총 3억원 규모로 16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내년 제주개발공사의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시범 사업성격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심사 결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선정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효과 분석을 벌여 내년 상반기에 제2회 해피플러스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와 제주를 발전시키는 열린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은 도민 참여이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시도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제주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비가 추경예산에서 2억원이 증액돼 총 4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강제제도다. 공제 납입금은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2.7%, 3개

월 단위 변동) 적용,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양장애 발생 시 월 납입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와 시흥은행(제1금융권), 인터넷(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등에서 가능하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2019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수악길 트레킹 초청행사

수악길을 탐방하며 그 속에 녹아 있는 자연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홍보하기 위해 제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09:00 ~ 17:00

사업내용

행사일정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09:00 ~ 17:00
출발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집결 후 버스로 행사장소 이동
트레킹 장소 : 수악길 5.16지점 ~ 사려니오름 입구(약 9km)
현장 이벤트 : 수악길 5.16지점에서 메디체크와 함께하는 무료 건강 검진 (약 1시간 소요)

모집인원 : 전 국민 대상 선착순 40명
개인준비물 : 산행복장, 우비, 덧옷, 등산화, 배낭, 간식 및 도시락 반드시 지참, 물

제 공 : 버스, 텀블러, 보험가입
접수방법 : 수요일 오전 9시 이후 전화접수 (064-738-4280)
문 의 :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064-738-4280)
한라산둘레길 홈페이지 (www.hallatrail.or.kr)

한라산둘레길 한국건강관리협회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1일(일) 08:00
장소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 선착순 40명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동행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 : 퀘일-산장길-정자내-노꼬메술길-퀘들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가입
1989년 8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초호우(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샤브롬(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팔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팔 히말라야 만나푸르네(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마나푸르(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부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를 올랐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공정 명예훈장수훈(체육공정 명예훈장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한 학 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010-9838-9552)

중국평문공립 하얼빈이공대학교 입학설명회

★ 중국어 HSK 등급없이 본과 입학

하얼빈 이공대학교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 성 하얼빈에 있는 공립 공업대학으로, 헤이룽장 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1950년대 초에 세워진 하얼빈 이공대학교는 오늘날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과, 인문학과, 법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미국의 트로이 주립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영국의 런던 대학교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제주대학교 등 10여개 국가 대학 및 연구소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제주시 서사로 20)
▶ 강사: 전하얼빈이공대학교 국제문화교육학원 한국학생입학교육 배상국 교수
▶ 추천학과: 대학외과

♣ 하얼빈이공대학교 장점

- 중국어 집중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경쟁력 제고
- 예비과정 없이 4년제 본과 입학으로 유학기간 1년 이상 단축
- 수능성적이나 중국어 등급시험인 HSK등급 취득 없이 입학 가능
-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포함한 총 유학비용이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수준
- 중국 최고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하얼빈에 위치한 동북지역 최대 국립대학
- 철저한 학사관리를 자랑하는 중국교육부 선정 우수 명문대학교
- 중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기술사범 학생 편의시설과 환경

참가신청대상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학부부,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

♣ 입학설명회 참가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제주 입학 대행처 : 동남유학

☎ 064-745-3666, 010-2691-24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5층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주)두산종합건재 임직원 모두는 품질 우선주의로 제주도민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취급품목

합판목재, 석고보드, MDF, 내장재, 몰딩류 일절 각종 도어, PVC·PE 수도관, 이중벽하수관 양변기·집사재·토목자재·건축, 설비자재 일체 인테리어자재, 안전용품

(주)두산종합건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67-3

T.(064) 748-2345, FAX.(064) 744-0083
E. doosan2345@daum.net